

역사문화 기록화를 통한 지역재생 방안 연구

A Study on Regional Regeneration through Historical and Cultural Documentation

○유 아 람* 유 해 연**
You, Aram Yoo, Hae-Yeon

Abstract

As the number of areas for urban regeneration increases, interest in documenting historical and living cultures, which were not readily available, is increasing. By documenting various cultures including local history and living history, it became meaningful to record and preserve regional characteristics prior to the change due to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thods, systems, and policies related to historical and cultural documentation, while the documentation project is actively proceeded. We examine the timing and frequency of documentation according to the region (Seoul and other regions) and determine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documentation project.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able of contents for the results of documentation,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and cultural documentation has been categorized and used as a clue to find limitations. Lastly, we will analyze cases that suggested the direction of regional regeneration through documenting history and culture, and figure out the meaning.

키워드 : 역사문화 기록화, 기록화사업, 기록 방법론,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

Keywords : Historical and Cultural Documentation, Documentation Project, Documenting Methodology,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역사문화, 생활문화 기록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고유의 역사와 생활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기록화 함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한 변화 이전의 지역특성을 기록하고 보전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통합적 도시재생과 밀접한 관계가 없더라도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물리적 변화를 추구하는 지역이라던가, 새로운 유형의 주거단지, 예를 들면 입체/복합화 공공임대주택 개발, 모듈러 주택단지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도 기록화 사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획일적으로 변화해가는 도시변화를 막고, 지역 고유성을 보전하고 새로운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록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문화 기록화와 관련된 방법론(수법), 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역사문화 기록화를 통해 지역재생의 방향과 단서,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 송실대학교 외부연구원, 공학박사

** 송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oongsil University, zenism@ssu.ac.kr)

이 연구는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 NRF-2020R1A2C1006354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역사문화 기록화에 대한 사업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역사문화 기록화는 사업의 주체에 따라 그 방향과 경중이 달라진다. 하지만 체계적인 역사문화 기록화의 시작은 2007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서울역사박물관의 ‘생활문화 기록화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최근에는 지자체의 도시재생 등의 지역사업에 앞서 진행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생활문화 기록화 사업, 특히 서울시의 기록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이 되는 역사문화 혹은 생활문화 기록화 사업은 지역의 거점시설이나 역사적 명소, 유적이나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이들은 특정 지역이나 마을처럼 지역을 기록의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에 기록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지역(서울과 그 외 지역)에 따른 기록화 시점과 빈도수를 먼저 살핀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판단하였다. 또한 기록화 결과물에 대한 목차 분석을 통해 연구 방법론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문화 기록화의 방법론을 유형화하고 동시에 한계점을 찾아내는 단서로 사용하였다.

2. 역사문화 기록화 현황 및 관련 제도

2.1 역사문화 기록 관련 제도와 사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은 지자체 혹은 연구원, 연구자에 의해 지속 되어왔다. 2000년까지의 기록 대상은 문화

재와 명승지처럼 특정한 단일 개체에 한정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지역사 기록들은 개괄적이고 거시적인 역사 기술 외에는 단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시설, 명승지에 국한되어 있다. 이들의 조사연구, 즉 기록 방식은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291호, 2013.)을 따르고 있다. 문화유산의 기록화에 대한 법령에 따르면 기록을 위해서는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따라야 한다. 지침에서 기록화의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단일 대상에 국한된다.* 또한 기록화 방식에 대해 텍스트, 이미지, 멀티미디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세부 컨텐츠를 정한다.(Table 1)

Table 1. Method for Documenting Business of Cultural Heritage

Project	cat.	sub-cat.	contents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Project	Text	Normal Text	-Academic Research -Meta-information
		Professional Text	-Original Important Record Documenting -Epigram -Ancient Writing
	Image	Normal Image	-Heritage in North Korea/Foreign Country -Administrative Record -Academic Research
		Original Info.	-Original Important Record Documenting -Epigram -Rubbing of an Inscription -Photoprint
	Survey Info.		-Important Wooden/Stone Heritage -Modern Architecture -Traditional Housing -Stone Art Heritage -Temple(North Korea) -Survey Drawings
		3-D Info.	-Tourism Product -Important Movable Asset -3D Scanning/Modeling
	Multi media	Video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Traditional Craft/Talent -Academic Information
		Sound	-Recoding/Encoding
		Contents	-Original Texts of Record -Original Form of Original Heritage -Animation/Cyber Media

대표적으로 역사 기록에 대한 예를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이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 전국의 지역을 대상으로 개괄적 지역사를 기술하고 집대성하고 있다. 이는 2019년까지 계속 조사 연구가 진행되며 업데이트 되고 있어 연속적인 지역 역사문화 기록에

* 유형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지역을 단위로 하는 것은 천연보호구역과 명승지 뿐이다.

** <http://www.grandculture.net/>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온라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록이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 방식이다. 추가적인 자료로는 지역의 사진 혹은 영상이 적은 양으로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다루고 있는 역사의 폭이 넓은 것에 반해, 고문헌이나 사료들이 시각적으로 깊이 있게 제공되지 못한다.

2.2 역사문화 기록의 현황

지역 단위의 역사문화 기록화에 대한 법령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큰 틀 안에서 위 규정(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전의 기록화 방식과 달리, 지역 단위의 역사문화 기록에 대해 표준점을 제시한 것은 서울시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한 생활문화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다.(Table 2) 이는 2007년 서울 보광동부터 시작하여, 서울 전역의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우선순위를 보면, 기록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재개발 지역과 서울시 주도의 사업지가 먼저 시행되었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은 자자체의 도시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재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뉴타운 보고서들이 2010년 전후에 활발히 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16년에 별도로 진행한 생활문화기록이 성과마을 정비사업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역사문화 기록화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체계적인 기록화 사업들 등장했다. 이는 개발과 정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더욱 중요한 사례가 된다.*** 도시재생과 지역 역사문화 기록화의 관계는 2017년의 새로운 정부정책으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맞물리면서 여러 지역의 생활문화기록사업에서 나타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각 자자체들은 선행 사업으로서 지역의 생활문화 기록화를 진행하고 있다.

3. 역사문화 기록화의 방법론

3.1 역사문화 기록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앞서 살핀 것처럼, 지역 또는 마을 단위의 보다 넓은 대상, 특히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 기록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역사박물관의 기록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물꼬를 튼,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는 역사문화 기록에 대한 학술적 의미는 지역성(로컬리티)에 대한 계를 고려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성을 기록하는 의미에 대해 Seol(2011, 209-212)은 먼저 지역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는 지역 사람들의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동시에 변화하는 것으로 지역성을 규정하였다. 이는 지역성을 기록하는

*** “급격한 도시화와 재개발사업 속에 사라져 가는 마을 공동체 기록 보전 필요성 대두에 따른 마을 역사 자료보존 및 마을 문화유산, 생활풍습 등 기록 및 사료화”(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의 파주 금촌마을 기록화사업(2017.6.5~12.6) 보고서)

Table 2. List of Historical and Cultural Documentation(Seoul)

no	yr.	organiza-tion	city	region(Korean title)
1	2007	Seoul History Museum	Seoul	Bogwang-dong(보광동 사람들)
2	2008			Gangnam area (강남 이야기로 보다)
3	2008			Seodaemun-gu(그리운 가제울)
4	2009			Buk-Ahyun area (안산자락, 고갯마을 북아현)
5	2009			Donwuijun area (돈의문 밖, 성벽 아래마을)
6	2009			Wangsim-ri area (왕십리뉴타운 조사 보고서)
7	2009			Gileum-dong(길음동)
8	2010			Seochon area (역사경관도시조직의 변화)
9	2010			Eulgi-ro area (세운상가와 그 이웃들)
10	2010			Ahyun area (아현뉴타운 조사보고서)
11	2010			Itaewon area (이태원 공간과 삶)
12	2011			Myeong-dong (명동 : 공간의 형성과 변화)
13	2011			Changsin-dong (창신동 : 공간과 일상)
14	2011			Dongdaemun area (불이 꺼지지 않는 패션아이콘)
15	2012			Dongdaemun area(동대문시장)
16	2012			Chungryang-ri area(청량리)
17	2012			nowon-gu(104마을)
18	2013			Garibong-dong(가리봉동)
19	2013			Majang-dong(마장동)
20	2013			Namdaemun area(남대문시장)
21	2014			Sungsu-dong(성수동)
22	2014			Sillim-dong(신림동)
23	2014			Hwanghak-dong(황학동)
24	2015			Huam-dong(후암동)
25	2015			Inhyun-dong(인형동)
26	2016			Seodaemun-gu(신촌)
27	2016			Cheongpa/Seogye-dong (청파·서계)
28	2017			Mapo-gu(홍대앞)
29	2017			Daechi-dong(대치동)
30	2018			Banpobon-dong(반포본동)
31	2018			Jongro-gu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터전)
32	2016	Seoul Metropo-litan City	Seoul	Ehwa/Choongsin area (이화충신 성곽마을 생활문화기록)
33	2016			Hangchon area (행촌권 생활문화기록)
34	2016			Buam-dong(부암동생활문화기록)
35	2016			Hyehwa/Myungryun area (혜화명륜 성곽마을 생활문화기록)
36	2016			Joong-gu (다산권 성곽마을 생활문화기록)
37	2016			Seongbuk-gu (삼선권369마을 생활문화기록)
38	2016			Seongbuk-gu (북정마을 생활문화기록)

것이 단지 유형의 대상을 남기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주자들의 활동과 이로 인한 지역 변화의 과정과 증거를 기록 및 수집, 생산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장소라는 개념을 불러와 거주자와 공동체가 만드는 집단기억과 함께 유형의 대상- 도시, 경관, 풍경, 생산물, 사물 등 -을 함께 기록해야함을 정리하였다. 지역성(로컬리티)의 정의가 지역(로컬)과 다름을 분명하게 하는 Seol의 연구는 역사문화 기록화에 대한 법제가 문화재 기록방식과 차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역사문화 기록화는 지역의 고정된 시점인 과거만을 남기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에 단서를 마련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지속적 활용 방안을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문화재 기록화사업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나 활용 방안 모색을 권장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다수의 기록화 사업 결과물이 보고서로 나오는 것에서 그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들(Yu., et al, 2008)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기록관리 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포털, 국토정보플랫폼 등)과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3.2 역사문화 기록화의 방법론적 접근

과거의 지역 단위 역사문화 기록이 주체에 따라 방향성과 깊이,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면, 서울시와 서울역사박물관의 '생활문화 기록화 사업' 속에 역사문화 기록은 체계적이고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해마다 3-4회씩 이슈가 되거나 중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에 필연적으로 통일성을 지녀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생활문화 기록화 사업 중 '역사문화 기록' 부분만 정리하면, 1. 지역의 형성과 지명, 2. 일반 역사 전반, 3. 지역의 변화 과정, 4. 문화적 역사적 장소, 5. 현재의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다.(Table 3) 생활문화 기록은 역사문화의 범주보다 크기에 역사문화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는 없으나, 그 내용의 범주는 위 다섯 가지 내에 포함된다. 시기적으로 2010년 전후 보고서일수록 역사문화 기록의 내용들이 혼합되어 목차를 구성하고 있고, 일반적인 역사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현재와 가까운 기록들은 기술의 과정이 명확하고, 명료한 목차 구성을 하고 있다. 또한 역사 일반보다는 지역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지도와 함께 기술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지역의 형성과정을 주요하게 본다는 것은, 지도와 항공사진, 그리고 명확한 기록물들을 통해 현재의 도시 모습과 가장 명확하게 역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여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어렵고, 역사적 기록과 밭굴에 그쳐 앞으로의 지역 변화와 정체성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문화재청훈령 제291호, 2013.), 제4장 성과물의 활용, 제11조(기록화 성과물의 활용), 제12조(기록화사업의 활성화).

Table 3. Tables of Contents in the Living and Culture Documentation Project

Title	Gyeonggi Village Documentation Business <Yonggang-ri>	Gyeonggi Village Documentation Business <Paju-GeumchonVillage>	Seoul Living & Culture Research, <Huam-dong>	Ehwa/Choongsin Seonggwak Village Living/Culture Documentation
Year	2012	2017	2016	2016
Organization	Gyeonggi-do	Gyeonggi-do	Seoul History Museum	Seoul Metropolitan City
Table of Historical Contents	Formation, Nomination	Chapter 2. Yonggang-ri in History and Now -Historical Change -Old Family Name and Characters	Part 2 Record(記錄)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Geumchon Village	Chapter 2.Changes in Huam-dong(History&Urban Geography)-Geography System of Hanyang City Castle, Namsan & Huam
	General History		Part 1 Reminisce(回想) -Geumchon History -Geumchon Natural Village	-History of Huam-dong -Ewha-dong, Chungsin-dong
	Change of Region	-	Part 2 Record(記錄) -Analysis of the Land Surve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rmation & Development -Geumchon's Historical Change from Folk Sociology	-Huam-dong, Changes of Urban area in Modern -Huam-dong Area, Sustainability & Change of Urban Organization -Huam-dong area, Formation of Residential Area and Road -Unlicensed Housing for the Poor -Ewha-dong National Housing Complex -Urban Changes in Rapid Development of Seoul
	Cultural, Historical Place	-	Part 1 Reminisce(回想) -Cultural Heritage -Geumchon Market Part 2 Record(記錄) -Geumchon Unification Market Yesterday & Today	-
	Present	-The current state of the village		-Revitalizing Naksan and the Castle

4. 결론

오늘날 도시의 패러다임이 개발과 정비에서 재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과 공동체 단위의 역사문화 기록에 대한 관심과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 기록화와 관련된 방법론(수법), 제도를 살펴고, 지역의 재생을 위한 단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역사문화 기록화의 현황을 알기 위해 앞선 역사문화 기록의 시점과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역사문화 기록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기록화 사업에 대한 제도가 단일 문화재에 맞춰져 있고 지역연구는 텍스트 중심의 거시적 연구에 그쳤다. 시기적으로 사업의 진행을 확인하였을 때, 역사문화 기록의 체계적인 틀이 잡히고 '지역'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서울시와 서울역사박물관의 '생활문화 기록화사업'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역과 도시의 패러다임이 재생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자자체는 재생 사업에 앞서 역사문화 기록을 진행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기록의 결과물을 살펴면, 변화가 있으나 역사문화 기록 과정에 있어 일관된 방법론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관된 방법론은 도시의 변화 과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전문적이고 기록에 그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역사문화 기록화가 고정된 틀이 있어 지역 재생과 연결지어 '지역의 정체성'을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역사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인이 역사문화 기록화가 지역 재생 사업과 연결되는 중요한 교두보라는 점에서, 보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접근법과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후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 역사문화 기록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단서와 방법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Seol, M. (2011). A Study on Documenting Locality in Digit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7~230.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0). Guidelines for Producing Standardized Data on Cultural Property Documentation.
- The Digital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Korea
- Yu, K. et al. (2008). *The Policy Strategy for Building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Archives in Korea*, AURI.
- Seoul History Museum (2007~2018). *Seoul Living & Culture Researches*, Seoul History Museum E-Book.
- Seoul Metropolitan City. (2016). *Living & Culture Documentations*, Seoul Metropolitan City E-book.
-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12~2017). *Gyeonggi Village Documentation Businesses*, The Center for Gyeonggi Studies(Publication Data).